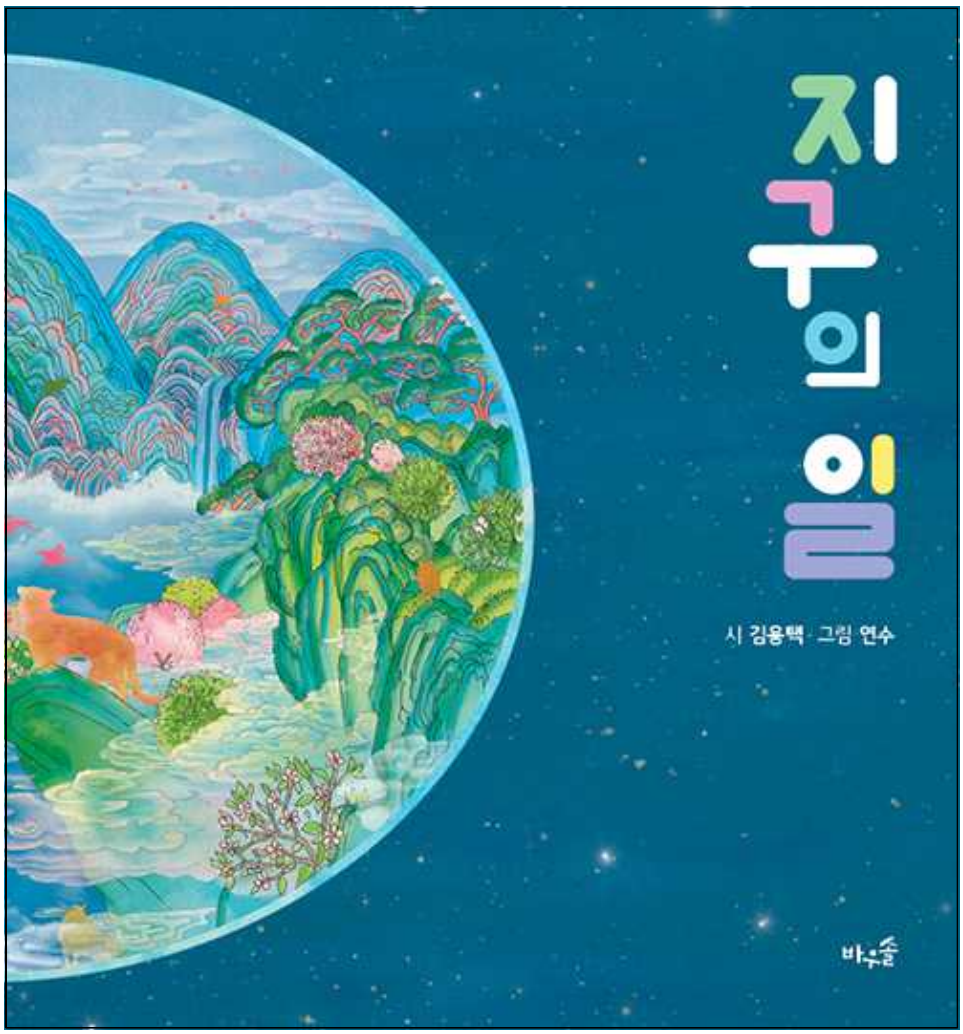
≪지구의 일≫ 독서지도안



'지구의 일'이 우리 모두의 일이야!
생명과 자연의 경이로움을 담은 김용택 시인의 그림책!

- **작가**_ 김용택 시 · 연수 그림
- **출판사**_ 바우솔

본 독후 활동 자료는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정, 배포하실 수 없습니다.

1. 도서 소개

녹아내리는 빙하, 불타는 숲, 사라지는 생물들, 세계 곳곳의 이상 기후 현상. 몸살을 앓는 지구의 소식이 연일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1등 한류 식품 '김'이 날로 뜨거워지는 우리 바다에서 머지않아 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대로 사라지는 건 김뿐일까요.

《지구의 일》은 지구, 즉 자연이 스스로 해내는 놀라운 일들과 생명 탄생의 경이로움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담아낸 시 그림책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국어 교과서에 실린 시는, 하나로 연결된 자연의 순환과 섭리를 담백하게 전하며 인간과 자연, 생명과 생명의 공감과 연대를 자연스럽게 일깨웁니다. 여기에 한국 전통화 '일월오봉도'를 모티브로 한 연수 작가의 독창적 그림이 더 큰 감동과 울림을 더합니다.

해가 뜨고 달이 뜨는 사이 하늘은 파랗게, 희게, 노랗게, 붉게, 검푸르게, 검게 다채롭게 바뀝니다. 시간이 흐르고 날씨가 바뀌는 거죠. 구름이 끼고, 바람이 불고, 꽃이 피고, 새가 날고… 일상에서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 자연 현상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신기한 일인가요.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은 오늘도 쉼 없이 움직이며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습니다.

책을 보며 지구가 해내는 일들을 하나씩 헤아리다 보면, 감탄과 더불어 절로 자연에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자연의 일부로 여러 생명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지요. 이를 통해 독자는 새로운 눈으로 지구와 자연을 바라보며 소중한 지구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자신의 역할을 고민해 볼 것입니다.

2. 지도 개요

• **대상** : 초등 1~2학년, 초등 3~4학년, 초등 5~6학년

• **누리 과정 연계** : 1~2학년군 통합교과 <봄>, <여름>, <가을>, <겨울> 공통

1학년 1학기 국어 7. 생각을 나타내요
1학년 2학기 국어 7. 무엇이 중요할까요
2학년 1학기 국어 1. 시를 즐겨요
3. 마음을 나누어요
2학년 2학기 국어 1. 장면을 떠올리며
3학년 1학기 국어 10. 문학의 향기
3학년 2학기 국어 1. 작품을 보고 느낌을 나누어요
4학년 1학기 국어 1. 생각과 느낌을 나누어요
5학년 1학기 국어 2. 작품을 감상해요
6학년 2학기 국어 5. 글에 감긴 생각과 비교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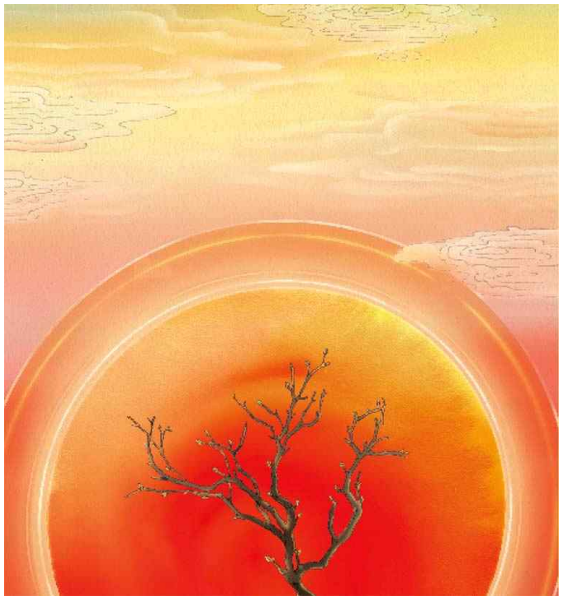
• **지도 요점** :

해가 뜨고, 달이 뜨고, 꽃이 피고, 새가 날고, 작은 새들이 마른 풀잎을 물어다가 가랑잎 뒤에 작고 예쁜 집을 짓고 살아가는 일…. 그 모든 일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그 일이 모두 다 지구의 일이고, 지구의 일이 우리 모두의 일이니까요.

그림책을 보고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 중 어떤 일이 가장 놀랍고 신비로운지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3. 책 이해하기

(1) 그림책에서 해가 뜨고, 달이 뜨고, 꽃이 피고, 새가 날고, 잎이 피고, 눈이 오는 일 등은 다 누구의 일이라고 했나요?



① 지구
② 목성
③ 토성
④ 화성

➡----------

(2) 노랗게 익은 살구가 저절로 땅에 떨어져 흙에 묻히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① 지구가 아파요
② 땅속 두더지가 놀라요
③ 살구나무가 또 태어나요
④ 살구나무가 울어요

➡----------

(3) 작은 새들은 무엇을 물어다가 예쁜 집을 짓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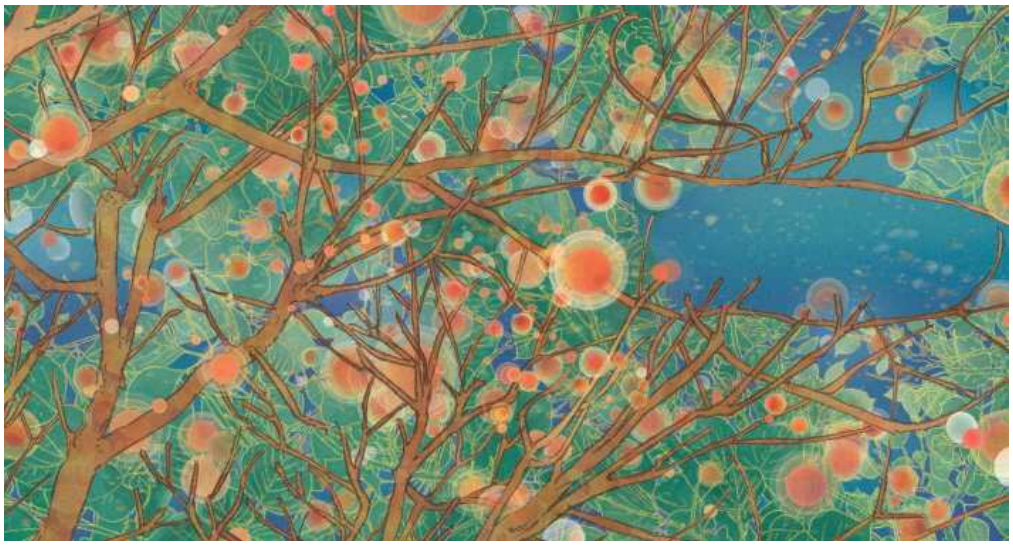
① 젖은 나뭇가지
② 하얀 눈덩이
③ 살구 한 알
④ 마른 풀잎

(4) 지구의 일은 또 누구의 일인가요?

① 하느님
② 우리들
③ 천사
④ 악마

4. 확장활동

(1) 이 그림책에는 살구 하나가 떨어져 자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다가 다시 자신의 씨앗을 퍼뜨리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지구의 일'이 담겨 있습니다. 풀 하나, 꽃 한 송이, 열매 한 알…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생명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생명의 소중함을 느꼈나요?



(2) 해와 땅, 바람과 물에서부터 씨앗과 나무, 동물과 인간에 이르기까지.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물질과 생물 등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인간 역시 홀로 살아갈 수 없지요. 우리는 이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지구의 일》에서는 지구의 일은 우리들의 일이며, 지구의 일을 사람들이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정답]

책 이해하기

(1) ① 지구 | (2) ③ 살구나무가 또 태어나요 | (3) ④ 마른 풀잎 | (4) ② 우리들

확장활동

(1) 우리 집 고양이가 힘겹게 새끼 낳는 모습을 보고 느꼈어요.
시멘트 틈새 흙 속에서 자란 민들레꽃을 보고 느꼈어요. 등

(2) 서로 돕고 존중해요.
저마다의 소중함과 가치를 잊지 않고 배려해요. 등

(3) 사람들이 자연을 파괴하여 이상 기후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구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면 인간도 삶의 터전을 잃고 살아갈 수 없어요. 등